

## ‘영원히 아마추어 정신으로 작품 탐구’

올해 산업디자인전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제29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이 디자인의 날 행사와 함께 지난 5월 2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상공부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많은 산업디자이너들이 꿈을 펼치며 대 도약을 위해 실력을 겨루는 장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기회가 적어 외국에 비해 산업디자인의 수준이 뒤쳐져 있던 게 사실이고 그로인한 산업디자이너들의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제품의 질만을 중시하던 기업인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제품의 질적인 차별이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디자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수상한 제품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해 왔던 사무용기기 포장의 캐릭터를 새롭게 하고 그린마케팅을 고려한 제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안상락·조성진씨 팀은 업계와 학계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안상락씨는 80년에 금성사에 입사하여 현재 비주얼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종류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한 베테랑 디자이너다.

산업디자인전 수상식장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여 받는 안씨는 무척이나 침착해 보였다. 예술인 다운 외모를 소유한 그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그가 산업디자이너의 길을 택한 이유는 대학 은사님의 작품세계에 매력을 느껴 평생 이 길을 갈 것을 결심하면서부터.

“저희 금성사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비주얼 인터페이스팀(VI팀)이며, 주업무는 금성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판촉물

과 패키지 등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VI팀은 다시 포장팀, 판촉팀, 컴퓨터그래픽팀, 마그네틱 테이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판촉팀에서 일합니다.”

금성사에 입사한 이래 많은 제품을 디자인 해 온 안씨는 정보기기 제품포장과 ‘화신테이프’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디자인 하는 등 오랫동안 비디오 테이프 디자인을 해왔다고 한다. 경험을 통해 포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는 최근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져디자이너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가져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내 포장디자인은 그저 화려한 컬러와 디자인을 선택해 왔으나 최근 컬러취수를 줄이고 환경을 고려한 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기업은 원가절감, 대내외적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큰 몫을 해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디자인 행위의 초기단계인 컨셉트 설정에서 환경문제와 연관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린마케팅을 위한 사무기기 서비스용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사무기기 제품이 우리주변에서 필수품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사무기기 제품을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서비스용품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많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디자인의 특징을 보면 첫째, 프린트되어 나오는 과정, 즉 종이에 정보가



◀ 제29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안상락(금성사) 씨가  
이번에 수상한 제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화상처리되는 프로세스를 방향성을 갖도록 시각적 운동감을 부여한 점이다.

둘째, 정보전달의 송수신 또는 보관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이로를 캐릭터화함으로써 시각적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였다.

셋째, 포장의 구조개선으로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의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측면에 프로테스트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집착제나 철판이 필요 없도록 포장형태를 새롭게 설계했다.

넷째, 재생지를 활용하고 인쇄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고려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비스용품의 포장디자인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아 왔던 경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씨는 외국에 비해 국내 포장디자인이 각 분야에 걸쳐 낙후돼 있음을 아쉬워 하고 지난 86년과 92년에 일본에서 연수를 받으며 선진 세계 시장의 기술을 배워 오기도 했다.

“이번 작품의 파트너인 인덕공업전문대학 조성진 교수와 많은 의견교환을 나누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업체에서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교수는 학계에서 터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갈 수 있었죠. 조 교수는 여러번의 수상 경력도 있었고 저보다 연배여서 일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며 웃는 안씨의 미소에는 수상의 기쁨

으로 가득차 있었다.

안씨는 덧붙여서 세계시장의 디자인은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평범하고 고정적인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어 경영주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패키지 디자인 분야에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로 추천 디자이너가 되어 더욱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영원히 아마추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작품세계를 넓혀 가겠습니다.” 라고 안씨는 작은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각을 살리기 위해 모든 제품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것과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덜가는 곳에 더 주의를 기할 것을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을 맺었다.

일에 있어서 만든 양보도 없고 철두철미한 성격이 국무총리상이라는 커다란 영광을 그에게 안겨 주었을 것이다.

늘 일에 매달리기 보다 때로는 연극을 보며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그는 현재 교사인 부인 사이에 1남1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다.

이선하 기자